

수도권 집중 풀지 않고는 부동산 폭등 해결 안된다

지방이전 대학·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구 증가시책 국비 지원 시급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보다는 근본적 지역균형발전 대책 마련돼야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검토했던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접고 새로운 공급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신규 공급이 실수요자의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아파트 공급·분양 시스템, 지방 인구·대학·기업의 수도권 유출에 의한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확장, 지방 이전 대학·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지방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지방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의 밀도를 낮추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해제 여부를 두고 혼신을 빚었던 그린벨트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폭등한 아파트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서 오히려 투기 세력을 부추겨 가격 상승을 이끌고, 수도권 과밀에 의한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기로 하는 등 현 아파트 공급·분양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여전히 수도권 내 아파트 공급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수요자들이 신규 공급 물량이나 시장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의 투명성 증대, 후분양제·분양가 상한제·분양원가 공개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공급 위주 부동산 시책을 지방에도 똑같이 적용하면서 전국을 아파트 투기판으로 만들었던 과거 정책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표시석이 세워져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과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만이 아닌 호남권, 영남권 등이 수도권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 2'을 업그레이드해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부처 및 공기업, 호남권 및 영남권으로 이전 가능한 세종시 정부부처 등을 포함하고, 대학·기업에 대한 지방 이

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7일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근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시즌 2'에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감안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관을 차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수행할 전담기구를 설치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실질적 균형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자나무 손소독제' 상용화 1만6000달러 일본 수출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남산림자원연구소가 '비자나무 잎 추출물 함유 손소독제 제조법'을 활용한 손소독제 제품을 상용화하고 일본 수출에도 나선다.

20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성원유통과의 기술이전 협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일본에 비자나무 손소독제 1만6000달러를 납품하고, 단계별로 수출 물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 미국, 중국 등 바이어와도 수출 물량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주)성원유통에 '동백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한 향진균용 조성물' 특허기술을 추가 이전했으며, 현재 손소독제, 물티슈 등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비자·동백 나무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catechin)이 다량 함유돼 있어 포도상구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과 HIV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억제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김재광 전남산림자원연구소장은 "비자·동백 나무 외에도 도내 우위 난대성 수종인 생달과 후박 구실잣밤 등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향장품 등 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며 "기능성 신소재 개발과 함께 기술 확보를 통해 전남 임업인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관광과 거리 먼 언론사 간부가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로?

혁신과 동떨어진 인물 '논란'
자신의 책 행정기관 강매 의혹도

광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공모에서 '관광과는 거리가 먼' 지역 언론사 간부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간부의 발탁을 염두에 둔 듯 전문성보다는 혁신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간부는 한때 자신의 저서를 행정기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혁신성 등과도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3명을 상대로 면접심사를 해 광주지역 언론사 간부 A씨와 한국관광공사 출신 B씨를 최종 후보자 1, 2순위로 광주시에 추천했다. A씨는 지역출신이고, B씨는 타지역 출신이다. 지난달 1차 공모에는 3명이 지원했으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2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7명이 지원했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A씨와 B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거쳐 결정사유가 없으면 최종 1명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한 질문에 "산하기관 대표를 선임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면서 "많은 인재들이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차 때엔 3명 정도만 공모했다. 아마 (내가) 사전에 누군가를 미리 내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듯하다"고 입을 뗐다.

이 시장은 "이번 인사는 특히 인사위원 선정부터 자율에 맡겼고, 아직도 인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른다.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하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한 뒤, "다만 (광주에선) 지역 사람을 발탁하면 시끄럽고 뒷말이 많은데 그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외지인을 영입하면 오히려 중요하다. 지역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특정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 시장은 또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제기된 특정 인사의 전문성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기준은 민선 7기와 방향성이 맞아야 하고, 혁신성 등을 갖춰야 한다. 일각에선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논란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관광 전문가면 관념에 빠져 기존 틀을 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을 놓고 일부에선 지역출신 언론사 간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간부는 최근 사측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은커녕 '짜고 치는 고스름'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지역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광전문성이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듯한 이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광주시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A씨 발탁설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선 과거 행적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자신의 저서를 행정기관에 판매했다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언론노보 성격을 가진 매체에 보도된 것 등을 두고 나온 말이다. 실제 A씨는 2017년 자신의 저서를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등 자치단체에 판매했다가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남연맹은 성명을 내고 "언론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사회는 견제를 수 없이 혼란해진다"며 "각급 행정기관에 홍보를 방자해 판매한 책들을 즉각 회수하고, 시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보 성격을 지닌 미디어오늘도 'XXXX신문 대표, 전남도에 책 '강매'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009년 자신이 펴낸 책에서 등장하는 인물 몇 명만 바꿔 다시 책을 펴내고, 일부 공무원에게 할당하거나 부서 운영비로 한 권씩 구매해 돌리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관광재단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광주지역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광재단은 이달 내 출범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청년드림수당 2차 참여자 602명 모집

5개월간 매월 50만원 지원

광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의 하반기 참여자 602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5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1대1 컨설팅·장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직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중위 소득 150% 이내 구직 활동 중인 청년이다.

홈페이지(http://dream2030.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더 세심히 파악해 향후 청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회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철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장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